

오늘은 장애인 선교주일입니다.

오늘 오후집회는 선교회별 모임입니다.

미자립교회를 돕기 위한 초록장터가 5월 1일에 열립니다. 이웃과 나눌 가정용품, 의류, 장난감, 육아용품 등을 초록가게에 기증해 주세요.

백현준 씨와 한지혜 씨가 결혼합니다. 예식은 23일(토) 오후1시 대덕교회(대전)에서 있습니다. 당일 오전 9:15 교회 앞에서 버스가 출발합니다. 허지훈 씨와 오숙현 씨가 결혼합니다. 예식은 23일(토) 오후1:30 아모르웨딩컨벤션(순천)에서 있습니다. 모두 축하합니다.

20일(수)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우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전보다 더욱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갖도록 합시다.

룻 2:5-13

오늘 식당 봉사 : 안정숙 김영희 이혜령 박소현 이수정 김정민 장병준 박상규
 다음 주 식당봉사 : 백혜숙 백성래 정현숙 주은경 박미연 이수자 이성범 박기영
 오늘설거지봉사 : 청파7속
 다음주설거지봉사 : 청파1속
 커피 판매 봉사 : 7여선교회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대예배실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4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 부활절 제4주 】 인도 1부 : 이범석 목사
2부 : 김재흥 목사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주님 나라는(×3)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17. 사랑의 하나님 다 함께

♣ 공동기도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으로 모든 생명을 돌보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크고 작은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연약한 몸과 마음을 붙들어주시고 날마다 밝고 강한 기운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이 사회가 이전보다 더욱 그들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며 인간다운 삶을 위해 애쓰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나라를 인도해 주십시오. 총선거 이후 사회가 새롭게 술렁거립니다. 56주년을 맞는 4.19의 자유와 정의의 정신을 이어가게 해주십시오. 언제나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 자유가 억압받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온 국민이 가야할 곳을 바로 보고 함께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계21:3b,4 인도자

♣ 교 독 문 74. 마태복음 5장 다 함께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 함께

2부대표기도 김인걸 장로

2부응답송 찬양대

2부찬양 391. 오 놀라운 구세주 다 함께

♣ 성경봉독 막 2:1-12 I. 인도자
II. 박범희 권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2부찬양 내 주의 보혈은 찬양대

말씀 연민과 연대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함께

· 헌금 영수기 및 속회 보고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고속이	곽상준	최경미	구명자	구재원	김근종	정옥영	김나름	김남종	오복순
김성옥	진해정	김승현	김수진	김용길	최영혜	김용태	김재홍	최희영	오희영
김정길	최숙화	김종락	박명신	김종문	지명주	문금석	박석희	조항미	박인혁
박재영	이현정	박정윤	박창운	허정윤	서해나	송영광	송인선	양상철	박재란
오미숙	오해인	윤정득	이광석	이경희	이용석	이자영	이재은	이한림	김명희
임선양	신현숙	전영린	김행자	정선희	정연희	정영례	정현모	조병무	송양진
조영순	최철수	곽권희	추현영	한봉섭	한완식	임정자	허성호	진은혜	무명

감사헌금

김정린 김종락 박영신 김지현 김해선 서은혜 이건호 김보민 이미정 이윤지
이은혜 정원석 김현영 홍성식 이유리 무명12

생일감사헌금

김재영 오송경

녹색꿈헌금

임선희 조항범 오현정 무명4

속 명	인도자	모일 곳	속 명	인도자	모일 곳
예루살렘	박성희	조순덕	청 파1속	김재흥	교회
안 디 옥	최경미	임정자	청 파2속	송형운	
가 나 안	장영숙	야외	청 파3속	하현철	
베 다 니	박홍재	박홍재	청 파4속	김정민	
시 온	권미숙	박효선	청 파5속	장영숙	
에 베 소	백혜숙	백혜숙	청 파6속	신진식	
빌 립 보	곽권희	백의경	청 파7속	김재환	
가버나움	안홍숙	야외	청 파8속	이범석	
나 사 렛	김경혜	안현숙	청 파9속	김인걸	
			청 파10속	장영숙	

마음으로 읽는 글

어느 별이 되었을까

서쪽 하늘에 있나
어느 별이 되었을까
내 어깨에 내려앉는 이 별빛 네 손길인가

새벽하늘에 있나
어느 별이 되었을까
통 트기 전 밀려오는 저 별빛 네 숨결인가

그날부터 비로소 그날부터 잊을 수 없는 그 웃음
어둔 바다 깊은 하늘에 지울 수 없는 눈망울

어느 별이 되었을까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
새벽이 일렁이는 저 바다에 사랑하는 내 별이 뜬다
지지 않을 내 별이 뜬다

- 이견범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이범석 신진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원로장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방문성 윤석철	
장로 : 한완식 한상익 김인걸 박홍재 김정민 하현철	
지휘 : 강석남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김현동	

찬양	93. 예수는 나의 힘이요	다 함께
♣ 봉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도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우는 이와 함께 울고 아파하는 이와 함께 아파하십시오. 고통당하는 이와 함께하고 연대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진심어린 연민과 연대의 길이 곧 구원의 길입니다.	
다 함께:	아멘. 자신의 아픔에만 골몰할 뿐 다른 이들의 아픔과 고통에 둔감하게 반응하며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우리의 아픔을 당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이신 주님처럼, 우리도 우는 이들 곁에 다가가 함께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 찬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복		담임목사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선교회	낮 집회 / 설교 : 김기석 목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1부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인도자
2부	김기석 목사	김정민 장로	송동준 집사

4월	1부 영접위원	박미영 권미정
	1부 헌금위원	곽권희
	2부 영접위원	김정민 이국노 문홍일 이형숙 김민화 한상경 정연희
	2부 헌금위원	한완식 박성실

믿음으로 읽는 글

광장으로 가신 예수

교회가 세상의 빛이 아니라 빛을 막는 두꺼운 암막이며, 소금이 아니라 세상을 썩게 만드는 세균이 되고 있다면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슬프게도 그게 현실입니다. - 한종호, <밀실에 갇힌 예수>

교회가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이 아니라 되레 세상을 썩히는 세균이라면 이보다 더 참담한 말이 또 있을까. 그런데 한종호 목사의 말마따나 그게 엄연한 현실이다.

각종 포털에서 ‘개독박멸’이란 댓글이 심심찮게 베풀을 차지하는 걸 보면, 확실히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서 바이러스 취급을 받고 있나보다. 연세 드신 목회자들은 일부 안티기독교 세력의 공작이라고 나이브하게 반응하지만, 그렇게 보기엔 너무나 많은 누리꾼의 지지를 받고 있다. 안타깝게도 기독교를 이 사회의 평균으로 보는 인식은 널리 확산되고 있다.

개독은 박멸해야 할 병균이라며 쇠소리를 내는 누리꾼에게서 나는 영화 <매트릭스>에 나오는 스미스 요원의 향기를 맡는다. 그는 모피어스에게 너희 인간은 바이러스라고 강변한다.

내가 여기 있는 동안 한 가지 깨달은 걸 나누고 싶어, 너희 종을 분류하면서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는데 인간은 결코 순수한 포유류가 아니었어. 지구상의 모든 포유류들은 본능적으로 환경에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데 너희 인간들은 그렇지 않아. 너희들은 한 지역에서 번식을 하고 모든 자연 자원을 소모해버리지. 그러고는 생존을 위해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지구상에 너희와 똑같은 패턴으로 움직이는 유기체가 있어. 바로 바이러스야. 인간은 질병이야. 이 지구라는 행성의 암적 존재지. 너희 인간들은 전염병이고 우리는 치료제다.

이 서늘한 대사를 들으며 감히 자신 있게 반박하는 사람이 없는 것

은 우리 인간이 이 초록별에 지은 죄에 대해 일말의 가책이나마 갖고 있기 때문이리라. 마찬가지로 수구 꼴통 기독교 세력인 개독을 박멸해야 나라가 편안해진다는 누리꾼의 주장에 코웃음을 칠 수 없는 것은, 도둑이 제 발 저리듯 우리의 허물을 알기 때문이다. 이런 모욕적인 언사에 또박또박 반박할 수 없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한 바가지의 참담함을 끼얹는다.

그렇다면 예수는 왜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밀실에 갇혀 있는가? 부활의 아침, 그 무거운 돌문을 열어젖힌 분이 왜 밀실 문을 열고 나오지 않는가? 주님은 우리가 문을 열어주길 고대하고 계시다. 그분이 스스로 문을 열고 나오시는 날은 가혹한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그전에 우리가 그분을 밀실에서 모시고 나와야 한다.

이 지점에서 한 목사는 밀실과 대척하는 한 공간, 예수에게 속한 본래의 공간을 제시한다. 그것은 광장이다.

... 문학연구에 보면, 서사를 이끌어가는 라이트모티프 중에 ‘장소애場所愛’라 불리는 것이 있다. 특정 장소에 대한 애착이 이야기를 끌고 가는 동력이 됨을 가리키는 말이다. ‘장소애’라는 모티프로 볼 때 기독교 역사는 밀실로부터의 탈출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밀실에 들어가 사제에게 죄를 고백하고 그의 속죄 선포에 가슴을 쓸어내리던 이들이, 우리 모두가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만민제사장의 기치를 높이 들게 되었다. 또한 교회 정치가 소수 종교 지도자에 의해 비밀리에 운영되던 밀실 정치에서 전 성도가 민주적으로 교회 운영에 참가하는 광장의 정치로 옮겨 왔다. 그뿐인가. 밀실에서 소수 권력자들이 나라를 쥐락펴락하며 국민을 탄압할 때 교회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포하며 독재에 맞서 싸움으로 밀실의 권력을 광장의 권력으로 열어젖혔다.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신 것은 훗날 자신이 밀실에 갇힐 것을 미리 아시고 하신 말씀일지도 모른다. 유명한 노래에도 나오듯이 예수는 춤의 왕이다. 이제 그만 예수를 중심부 높은 밀실에서 풀어놓아 변두리 낮은 광장에서 생명의 춤을 추게 하라. 그날에 그분이 잔치를 베푸시리니 참여하는 자에게 생명이 있으리라. 아멘.

- 박충,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포이에마) 중에서